

주먹밥의 전설

5·18민중항쟁 32주기 추모시-전 속 시인

꽃잎이 꽃잎이 날개가 너무 작아 눈물겨운 꽃잎아 모진 바람에도 휘임 없이 휘임 없이 피어나라

꽃잎들의 눈물 눈물로 주먹밥을 뭉치면 얼마나 단단한 반석이 되는지 얼마나 따뜻한 위로가 되는지

전설의 나라에는 깃발한 꽃들거리 서로서로 우리 세계가 우리 어버이요 우리 공간이어서

주먹밥처럼 자유의 변제물이 된다는 것은 꽃잎 꽃잎마다 피 끓는 심장고 고동치는 혈맥을

붉디붉은 꽃물에서 오물을, 재스민을 안아 울리며 피 끓는 심장에서 색색이 피어나는 꽃이 자유라고

광주 법인택시 6부제 전환 두 달

서비스는 되레 '뒷걸음질'

지난달 승객불만 109건...시행 전보다 10여건 많아

시민 이하연(여·27)씨는 최근 광주시 북구 현대백화점에서 택시를 타고 무등장레스토랑으로 가던 중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광주지역 법인택시 운영체계가 지난 3월 20일 28년만에 8부제에서 6부제(5일근무 1일 휴식)로 전환된 지 두달에 가까워지고 있다.

택시기사가 광주시장에 감사편지를 보낼 정도로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무환경은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애초 예상과의 달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6부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4월 한달 간 접수된 택시 교통불편 신고는 모두 109건으로 지난 1월 101건, 2월 98건, 3월 103건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광주시는 6부제 시행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재산소실이 감소하는 물론 친절서비스 향상과 올바른

큰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의 7일 근무 뒤 1일 휴무하는 8부제와 달리 6부제 시행으로 광주법

하지만 일부 법인택시기사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지 못해 난폭운전과 승차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하다.

김영찬(55)씨는 "시민들의 발 노릇을 해야 할 택시를 타면 짜증부터

김영찬(55)씨는 "시민들의 발 노릇을 해야 할 택시를 타면 짜증부터



충남 금산고 학생 5·18모지 참배 5·18민중항쟁 제32주년 기념식을 이틀 앞둔 16일 충남 금산고 학생들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오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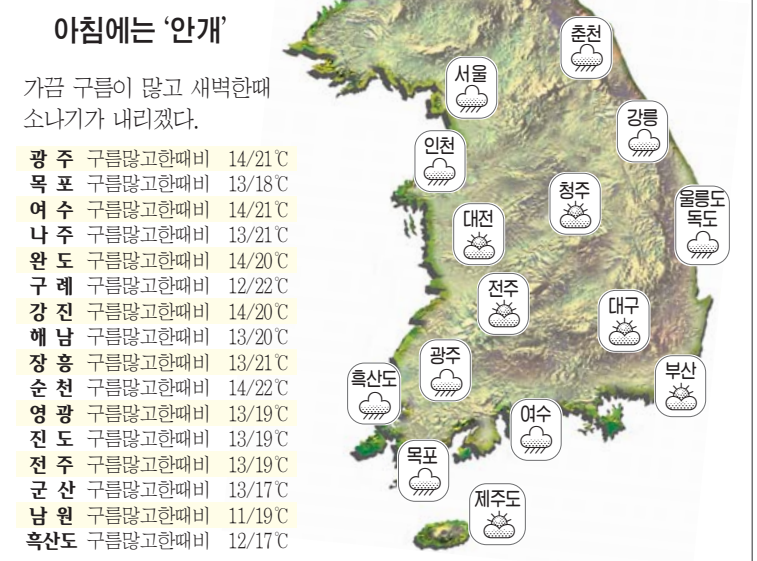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different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wind, and precipitation.

Table with 7-day weather outlook for Gwangju, including daily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 ranges.

전남 서남해안 천둥·번개 동반 소나기

17일 전남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천둥번개와 풍물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DAEMYUNG RESORT NEWS

Large advertisement for Daemyung Resort featuring golf, skiing, and other amenities. Includes text about special offers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우울증' (Depression) treatment by Kyunghee Han MD. Includes a photo of a couple, text about the benefits of treatmen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linic.